

그림 44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피해자의 관계별 분포

4. 방화

1) 범죄발생시간

- 2019년에는 총 1,345건의 방화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40.7%가 밤(20:00~03:59) 시간대에 발생하였으며, 22.8%는 오후(12:00~17:59) 시간대에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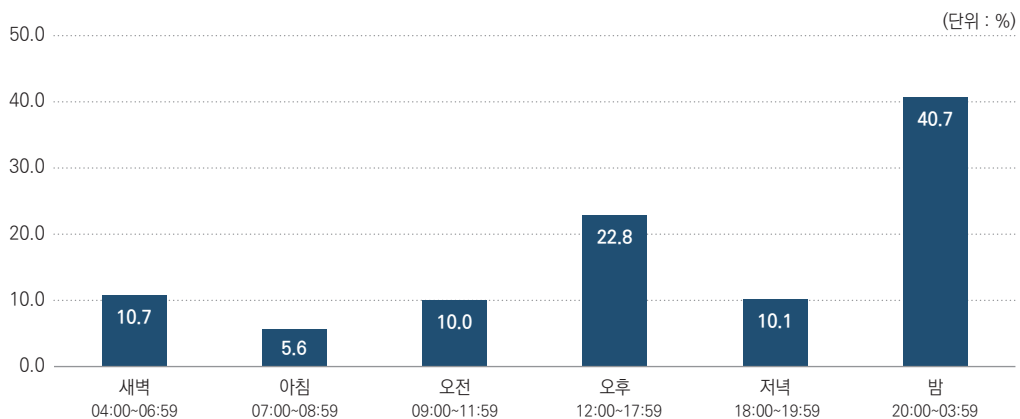


그림 45 방화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

2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검거된 방화범죄 범죄자의 83.6%는 남성이었으며, 16.4%가 여성으로 나타났다.
- 검거된 방화범죄 범죄자는 51세~60세가 27.3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41세~50세(24.7%), 61세 이상(14.0%), 19세~30세(14.0%) 등의 순이었다.
- 남성범죄자는 51세~60세의 비율이 27.6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이 41세~50세(24.2%), 61세 이상(15.1%) 등으로 나타났다.
- 여성범죄자는 41세~50세의 비율이 27.0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이 51세~60세(25.6%), 31세~40세(19.9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표 31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8세 이하	91(8.4)	8(3.8)	99(7.7)
19세~30세	148(13.7)	32(15.2)	180(14.0)
31세~40세	118(10.9)	42(19.9)	160(12.4)
41세~50세	261(24.2)	57(27.0)	318(24.7)
51세~60세	298(27.6)	54(25.6)	352(27.3)
61세 이상	163(15.1)	18(8.5)	181(14.0)
계	1,079(100.0)	211(100.0)	1,290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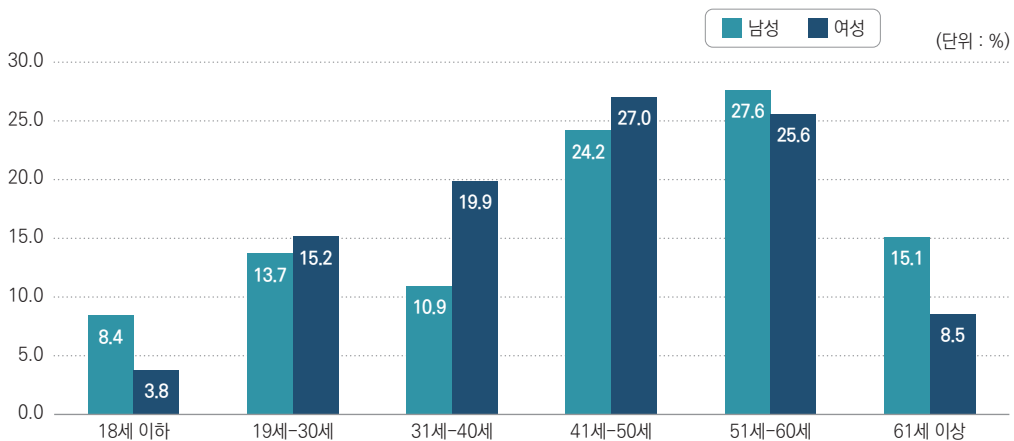


그림 46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3)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

- 방화범죄 범죄자의 44.4%는 정상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, 43.4%가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. 방화범죄 범죄자 중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12.2%였다. 여성범죄자는 남성범죄자에 비해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(여성 17.3%, 남성 11.3%), 남성범죄자는 여성범죄자에 비해 주취상태에서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(남성 44.7%, 여성 36.4%).

표 32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행시 정신상태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정상	415(44.1)	80(46.2)	495(44.4)
정신장애	106(11.3)	30(17.3)	136(12.2)
주취	421(44.7)	63(36.4)	484(43.4)
계	942(100.0)	173(100.0)	1,115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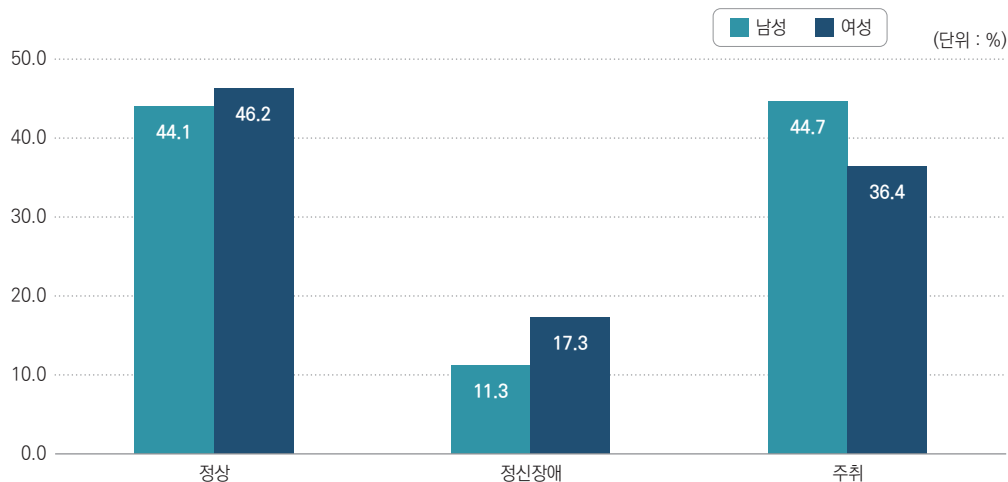


그림 47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